

국회, 광주 '국가 NPU 컴퓨팅센터' 예산 논의 본격화

안도걸·서왕진의원 예결위 질의 정부 "적극 검토하겠다" 호응 시, 기초사업비 20억 반영 요청

광주에 '국가 NPU(신경망처리장치) 컴퓨팅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국회 예산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구을)에 따르면 안 의원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국가 AI(인공지능) 컴퓨팅센터 광주 유치 실패에 대한 대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이와 관련된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안 의원은 "광주 AI 컴퓨팅자원센터에 관한 고민을 정부가 많이 하고 있으며, 국무총리도 정부 차원의 확실한 후속 조치와 신속한 이행계획을 약속했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안 의원은 구체적으로 △국가 NPU 전용 컴퓨팅센터 설립 필요 △국가 AI 연구소 설립 △국가 AI 데이터센터 컴퓨팅 자원 및 시설·인력 고도화 △스마트 모빌리티 도시 조성(실증사업) 등 4 가지 대안을 언급하며 본예산 반영을 촉구했다.

이에 구 장관은 "예산소외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도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고 있다. 서울=김현수 기자

상대로 "1단계 데이터센터 고도화 및 국가 NPU 전용 컴퓨팅센터 구축, AI 실증사업 확대 및 사업화 지원 강화, AI 연구소 설립과 인재양성 등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배 장관은 "광주시와 협력해 AI 반도체 실증·검증 체계를 구축 중이며, 재정 소요와 사업 여건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잘 살펴보겠다"며 "광주·전남이 충분히 AI 시범도시·실증도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충분히 잘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광주시는 국가 AI 컴퓨팅센터 유치 실패 이후 국가 NPU 컴퓨팅센터 구축을 대안으로 꺼내 들고 예산 확보에 나섰다.

광주시가 정부에 반영을 요청한 예산은 20억원으로, 국가 NPU 컴퓨팅센터 설립을 위한 기초 사업비다. 국내·해외 NPU 시장, 관련 기업 등의 기술성, 광주에 설치할 경우 부지 적정성, 전력 수급 방안, 냉각방식(공냉식·수냉식), 총 사업 예산 수립 등 연구에 사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GPU가 대규모 병렬 연산을 수행해 AI '학습'에 활용된다면, NPU는 GPU보다 10~100배 높은 연산 효율로 AI '추론'에 특화된 반도체 칩으로, AI 상용서비스를 위한 필수 인프라다.

광주에는 AI 반도체를 설계하는 에이지랜드·에임퓨처·퓨리오사·AI·리밸리온 등 팝업스 기업 등이 실증 및 검증 사업을 통해 국산 NPU를 출시했고, 현재 고도화·상용화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김현수 기자



민주 문예특위 "종묘 앞 고층 건물 개발 반대"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손명수 의원과 위원들이 11일 국회에서 종묘 앞 고층 건물 개발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태균 도의회 의장 "K-스틸법" 입법 서둘러라"

국회 제정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철강산업 지속가능 발전 담보"

전남도의회가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할 'K-스틸법'의 빠른 입법을 촉구했다.

11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김태균 의장(더불어민주당·광양3)이 대표발의한 'K-스틸법' 조속한 입법 촉구 건의안이 이날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

과, 본회의에 상정됐다.

건의안은 지역 주력산업인 철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경제의 균형 성장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다.

김 의장은 "우리나라 철강산업은 지난 50여년간 국가 산업화를 견인해 온 핵심 기반으로, 조선·자동차·건설 등 주요 제조업의 근간이 돼 왔다"며 "생산과 수출, 고용창출 측면에서도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만큼 이제는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히 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특히 "최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산업구조 전환, 미국의 고율 관



세 부과와 글로벌

조성을 위한 재정지원과 세제혜택을 강화 등을 담고 있다.

김 의장은 "철강산업은 국가 경쟁력과 지역균형발전의 근간이자 미래 산업 전환의 시험대"라며 "조속한 법 제정을 통해 철강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공정한 산업전환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적 대응이 신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K-스틸법'은 민주당 권향엽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대표발의해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심의가 진행 중이다.

정근산 기자

이재태 도의원 "학교 문 닫는 대가로 돈잔치 벌이니"

"통폐합 지원금으로 해외여행"
성과평가·사후관리 강화 촉구



교육부는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예산을 본교 교사 중심의 해외탐방에 사용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적정 규모 학교 육성 지원금 집행지침은 일회성 투자를 지양하고, 교육과정 중심으로 사용하라는 원칙이 있다'며 '지원금이 본래 취지대로 학생 교육활동과 지역교육 회복에 쓰이도록 성과 평가와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학교 통폐합 이후 남겨진 마을의 공동체 봉고와 상실감은 매우 크다"며 "폐교 지역에 대한 별도의 지원 대책과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한 종합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근산 기자

정철 도의원 "전남교육청 말로만 독서 인문교육"

"매일 책 읽는 학생 10% 남짓"
학생 주도 독서문화 정착 주문



정 의원은 "전

국 최초로 도교육청 차원에서 독서 인문교육 전담팀을 신설해 독서문화 확산에 나선 점은 긍정적이지만, 이러한 양적 확대가 학생들의 실제 독서습관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 4월 전남 초(5·6학년)·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매일 책을 읽는 학생은 10% 남짓에 불과했고 응답자의 절반 이상(57%)이 하루 평균 독서 시간이 30분 미만이라고 답했다. 특히 초등학생의 연간 30권 이상 독서 비율은 29%였으나 고등학생은 4%로 급감해 학년이 높아질수록 독서활동이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근산 기자

전남도교육청의 독서 인문교육이 학교 현장에서는 제대로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교육위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장성1)은 11일 열린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학교 98%

가 독서 인문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지만 실제 학생들의 독서량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전남교육청이 추진중인 독서 인문교

육 프로그램에는 도내 초·중·고 821개교 중 806개교가 참여하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은 '책으로 여는 아침', '독서 인문 동아리', '독서인문교육주간', '디지털 기반 독서인문교육' 등이다.

그러면서 "현재 운영 중인 '책으로 여는 아침' 프로그램 등을 확대해 학생이 자율적으로 정한 시간에 스스로 책을 읽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학생 주도형 독서 동아리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교사가 이끄는 활동이 아니라 학생이 스스로 만드는 '독서공동체'가 형성될 때 진정한 독서문화가 학교 현장에 뿌리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근산 기자

인생을 맛있게
농심

환상적 밸런스의 매콤꾸덕함!
신라면통바

신라면의 맛있게 매운맛에 부드러운 크림을 더해
신라면 투울바 레시피 맛 그대로!